

인간의 복지향상을 위한 환경운동의 방향*
A Study on the Direction of the Environmental Movement
for the Improvement of Welfare*

우석대학교 가정학과
부교수 박 순 희

Dept. of Home Economics, Woosuk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 Soon-Hee Park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인간의 복지향상을 위한 환경운동의 방향 |
| II. 경제학, 사회학, 신학에서 본 환경 | V. 요약 및 결론 |
| III. 가정학에서 본 환경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grope the direction of the environmental movement for the improvement of welfare. The deterioration of environment which was resulted from the development of material civilization due to the industrialization made people newly recognize the importance of environment. The quality of the future life depends on the solution of the environmental problems. The family-centered environmental movement as a new cultural movement in the daily life should be revitalized for the purpose of improving welfare. This study investigated the several views on the environmental problems in the neighboring disciplines of home economics. And on the basis of the results of the study, the direction of environmental movement to be developed in home economics was represented.

This study represented the directions of the environmental movement as a new cultural movement in the daily life as follows: alternative life-style, that is, pro-environmental life-style-oriented direction; community-oriented direction such as cooperative association movement in daily life; the politicalization of the environmental problems, that is, the endeavor to reflect the election promise on the environment in the vote, etc.

The contents of the environmental movement should be treated of in environmental education, consumer education, family-life education, school education, and life-long education.

* 본 연구에는 2000년 우석대학교 학술연구비가 지원되었음

I. 서론

현대 사회는 인류의 문명사에서 일찍이 경험하지 못하였던 새로운 현상에 직면하고 있다. 이는 개인의 삶이 전체 인류적 차원에서 결정되어 간다는 점이다. 즉, 개인이 경험하는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물, 땅, 공기, 일 등이 인류공통의 과제가 되었다는 사실이다.

이에 따라 개인과 가족을 둘러싼 자연환경 및 사회환경은 개인과 가족의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으며, 또한 개인과 가족의 생활은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환경의 황폐화 현상은 이제 개인의 일이라든가 혹은 개인과 무관한 국가의 일로 간주될 수 없게 되었다.

1991년 유네스코는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 개발(Environmientally Sustainable Economic Development: Building on Bruntland)' 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놓았으며, 1992년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지구 정상회담에서는 오염, 빈곤, 자원의 남용으로부터 지구를 구하기 위한 국제적인 합의를 모색하였고, 이의 결과로 경제적인 요구와 생태적인 요구의 결합 수단으로서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개념이 본격적으로 등장하였다(유진 오덤, 이동원 외 역, 1998, 362).

우리나라의 경우, 196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이 주로 공해를 유발하는 산업구조에 의존하게 되면서 공해의 발생이 점차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공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1970년대 환경운동이 이루어졌다. 1980년대의 환경운동은 주민들로부터 과학기술자의 모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준의 운동단체들로 전문화되었으며, 이들 사이의 연대 구축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러한 활동에 힘입어 1980년에 발족된 정부의 환경청이 1990년에 '환경처'로 승격하고 1990년을 환경보존원년으로 정하게 되었으며, 1990년대에 들어서 환경운동에 대한 긍정적 여건이 조성된 것으로 평가된다(가톨릭 정의평화연구소, 1993, 283-285).

환경운동은 매우 다양한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마르크스주의, 생태주의, 보수주의 정치노선 등

에 이르기까지 환경운동의 이념적 성향을 한 마디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다. 그러나, 이들 이념을 크게 나누어 보면 과학과 기술 또는 정책 등에 의존하여 재활용과 폐기물처리를 효율화하는 방향과 인간중심의 가치관을 극복하고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가치관과 생활양식으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방향의 두 방향으로 대별할 수 있다. 이는 기술중심주의(technocentrism)와 생태중심주의(ecocentrism)로 표현될 수 있다.

이들 두 가지 방향에 근거하여 근대사회 이후 경제학과 사회학, 신학에서 환경의 문제를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왔다. 그러나 환경문제가 가지는 특성의 하나는 이것이 어떤 하나의 특정과학에 의해 다루어질 수 있는 단일한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환경문제는 일차적으로는 인간을 둘러싼 물리적 환경과 관련되어 있으나 문제의 발단이 인간의 전체적 삶에 관련되어 있는 만큼 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이 물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인간 삶을 규제하는 모든 부분과 관계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다양한 학문분야의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김남두, 1995, 56-57).

이와 같은 환경문제의 특성을 고려할 때, 종합학문으로서 가정학에서 마땅히 다루어야 할 주제이다. 실상 인간과 환경은 고대 가정학의 기원에서나 근대 가정학 성립의 초창기 때 이미 가정학의 정의 속에서 주요 개념으로 규정된 바 있고, 1980년대 이후 인간생태학이 가정학 연구의 중요한 개념적 틀로 사용되어왔다. 더 나아가서 인간의 복지 향상에 최종 목적을 두는 가정학에서는 현대 및 미래사회 복지에 중대한 장애요소로 나타나고 있는 환경문제에 대하여 실천적 대안을 제시해야 할 사명이 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가정학 분야의 환경관련 연구로는 환경친화적 소비자 행동에 대한 연구(박운아, 1997; 민현선, 이기춘, 1999), 가정의 환경관리행동에 대한 연구(최남숙, 1994, 노남숙, 1994)가 이루어져 왔으며, 최근의 몇몇 연구에서는 환경친화적 소비행동과 가치, 생활양식을 연결시키는 연구(송인숙, 1999; 계선자, 강기정, 1998)나 소비자교육과 환경교육을 연결시키는 관점의 연구(서정희, 1999)가 이루어

어져 왔다.

이들 연구에서 부분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환경에 대한 개념을 통합적으로 파악하고, 환경운동의 새로운 실천방안을 제시하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경제학, 사회학, 신학, 그리고 가정학 분야의 환경관련 주제에 대한 문헌고찰을 주된 연구방법론으로 채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추후 가정이 주체가 된 환경운동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이념적 근거와 방향을 설정하는 데 기초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II. 경제학, 사회학, 신학에서 본 환경

1. 경제학에서 본 환경

경제학에서는 환경문제를 자연자원의 고갈과 환경오염이 어떤 법칙에 따라 이루어지는 현상으로 본다. 즉, 자연자원 고갈이나 환경오염의 현상 역시 수요-공급의 법칙을 중심으로 한 시장의 원리의 지배를 받는다고 보는 것이다.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최우선의 경제문제라고 보면서 이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시장메커니즘의 기능을 믿는 경제학인 주류 경제학과 마르크스의 경제이론을 핵심으로 하는 마르크스경제학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다.

1) 주류경제학

주류경제학은 기술중심주의와 인간중심주의에 기본을 둔다. 기본적으로 자연을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해야 할 대상으로 보며, 경제성장 과정에서 환경파괴는 어쩔 수 없는 부작용이지만 인간은 이 부작용을 기술적으로 잘 해결해나갈 수 있다고 보는 사고이다.

기술중심주의는 고도의 기술과 물질적 소비수준을 인류사회의 진보를 측정하는 척도로 삼으면서, 이 진보는 자연의 법칙을 찾아내어 이를 경제원칙에 따라 잘 응용함으로써 달성된다고 본다. 다시 말해서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이 곧

진보의 원동력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기술중심주의에서는 인류사회의 진보란 명목 하에 인간의 자연에 대한 지배가 정당화된다. 기술중심주의 역시 환경을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보지만, 환경의 무조건적인 보존보다는 환경의 효율적 관리를 더 크게 강조한다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이정전, 1998, 99-102).

또한, 주류경제학의 가치관은 인간중심의 가치관이다. 따라서 경제학이 최적으로 보는 상태는 인간의 욕망이 최대한 충족되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자연이 이용되는 상태이다. 따라서 이 경제학에서 자연 또는 환경이란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이런 사고방식에서는 인간의 욕망이 먼저이고 환경은 그 다음이다. 이런 면에서 환경에 대한 경제학의 입장은 기능주의적이다.

경제학은 환경문제를 시장기구의 기능이 부분적으로 원활하게 작동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본다. 따라서 시장기구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보완해준다면, 경제학이 생각하는 환경문제는 사라질 것으로 본다. 예컨대 환경오염이 사회적으로 문제시된다고 하면, 이는 상품의 가격과 생산요소의 가격이 잘못되었음을 의미하며, 따라서 경제학이 환경문제에 대하여 제시하는 대책은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의 이용에 대하여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과정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우므로, 정부가 환경세나 배출부과금 등을 부과하거나 환경에 대한 재산권 혹은 이용권을 설정하여 이를 환경 이용자들에게 부여하는 등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본다(이정전, 1998, 103-104).

그러나, 주류경제학에서는 소비자 개인 욕망의 충족을 목적으로 삼으면서 가치중립을 표방하거나 다른 가치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소비자 개인의 욕망충족을 인간사회의 궁극적 목적으로 인정하게 하는데, 환경위기의 근원적 원인이 되는 인간의 무절제한 욕망을 인정하게 한다는 점에서 한계점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환경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볼 때, 이 경제학이 재화를 생산하는 데 관련된 한계비용과 평균비용에는 관심을 갖지만 그 재화가 무엇인가 하는 데에는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점에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어떤 재화를 생산하는지의 문제는 환경의 위기를 초래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다(박운아, 1997, 9).

2) 마르크스경제학

마르크스경제학에서는 역사성, 계급, 노동의 문제를 중시한다. 마르크스경제학에서는 역사적 맥락 속에서 일어나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갈등의 문제, 즉 계급과 계급 사이의 갈등문제를 중시한다. 이 관점에 따르면 자본주의 사회의 환경문제는 자본주의라는 특정 생산양식과 결부된 체제상의 모순으로부터 찾고 있으며, 따라서 체제의 근본적 개혁 없이는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본다(이정전, 1998, 115-120).

마르크스는 인간의 노동을 인간과 자연 사이를 연결하는 고리로 보아, 인간과 자연의 일체화는 인간의 노동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본다. 따라서 인간과 자연의 관계는 직접적인 관계가 아니라 인간 사회라는 조직을 매체로 한 관계이며 그렇기 때문에 사회조직의 양태에 따라 성격이 달라지는 역사성을 띤 관계라고 본다. 이때 노동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생존을 위해 자연을 적극적으로 변형시키는 것이다(이정전, 1998, 121-123).

사회구조가 바뀔 때 따라 인간이 자연법칙의 지배를 받는 양태가 달라지게 되며, 자연법칙이 사회에 응용되는 정도가 달라지게 된다. 자본주의 사회 이전 시대와는 달리 자본주의 시대로 넘어오면서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는 크게 변화되었다. 노동자는 자연의 리듬이 아닌 기계의 리듬에 맞추어 노동을 해야 하며, 인간의 가치는 그가 생산한 상품의 현금 가치에 의해 결정되고, 이에 따라 인간의 비인간화, 인간소외가 발생되었다. 자본가의 이윤추구 동기는 노동뿐만 아니라 토지를 비롯한 자연까지도 생산에 이용될 상품으로 전락시켰다. 자연의 법칙을 이용해서 자연을 지배하는 목적이 인류 전체의 복지증진으로부터 자본가라는 특정계층의 이윤극대화로 변질됨에 따라 노동과 자연 모두 상품으로 전락하였고 이 결과 자연과 인간이 서로 분리되었다고 마르크스는 주장한다. 본질적으로 그는 인류의 사회적

재생산의 자연적 조건인 생산조건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상품처럼 대량 찍어낼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며, 따라서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조합이 만들어내는 어떤 힘이 생산조건에 과도한 부담을 주게 되면, 이때 생태위기 또는 환경위기가 도래하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이정전, 1998, 124-126).

그러나 이렇듯 마르크스가 환경파괴와 환경오염의 원인을 자본주의의 무한정한 자본증식으로부터 도출해내었다는 점은 자본증식에서 자연적 조건이 지니고 있는 한계를 과대평가한 것으로 비판된다. 또한, 이 이론의 근본적인 한계는 자본주의 사회의 환경오염 수준에 결코 뒤지지 않는 사회주의 사회의 환경오염을 이와 같은 환경오염의 발생 메카니즘을 가지고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신영철, 1995을 박운아, 1997, 10에서 재인용).

2. 사회학에서 본 환경

환경과 사회간의 상호작용에 관한 사회학적 접근은 대체로 인간생태학에 그 뿌리를 두고 있으나 Catton과 Dunlap의 신생태학 패러다임, Schnaiberg의 정치경제학적 접근, Humphrey와 Buttel의 정통사회학적 접근의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양중희, 이정전 편, 1995, 80-91; 험프리, 버틀, 양중희, 이시재 역, 1995, 23-56).

1) Catton과 Dunlap의 신생태학 패러다임 (New Ecological Paradigm)

Catton과 Dunlap은 기존 사회학의 여러 이론적 조망이 인간중심주의를 근간으로 한 서구의 지배적 세계관에 영향을 받아 그들이 '인간 예외주의 패러다임(HEP: Human Exemptionalism Paradigm)'이라 부르는 기본 가정을 공유하고 있다고 보아, 이에 대응하는 NEP(신생태학 패러다임)를 제안하였다. 환경과 사회간의 상호작용을 중시하는 이러한 패러다임에 기초하여 Catton과 Dunlap은 현대사회의 환경문제를 인구의 증가와 경제성장이 생태계의 수용력에 위협을 가한 결과로 본다.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패러다임의 전환, 다시 말하면 세계관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즉 HEP에서 NEP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것은 가치관의 변동에 해당된다. Catton과 Dunlap은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환경주의자들에 의해 전파되어 일반 공중에까지 차츰 확산되고 있다고 본다.

2) Schnaiberg의 정치경제학적 접근

Schnaiberg는 환경을 사회와 인간의 물질적 생존의 기반으로 본다. 인간은 물질적인 측면에서 열역학법칙의 지배를 받는 생태계의 생산에 의존함과 동시에 열역학법칙과는 다른 경제적 원칙에 의해 사회문화적 생산을 한다고 본다. 이 두 생산체계는 잉여를 사용하는 방법에 있어서 다르다. 생태계는 생산된 잉여를 상쇄하는 데 알맞은 종과 개체군의 생산만을 허용하여 안정상태(steady state)에 도달하나, 사회는 더 많은 잉여를 축적하기 위해 잉여를 사용한다. 이러한 잉여사용에 있어서의 차이가 두 체계간의 모순을 낳고 그것이 환경문제를 야기한다.

근대사회 이후 인간의 생산방식이 크게 바뀌어 급속한 경제적 성장을 이룬 반면, 생태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서 생태학적 해체를 초래하게 되었다고 보면서, Schnaiberg는 특히, 자본주의 경제의 특징인 경쟁과 이윤추구의 과정에서 생산이 더욱 독점화되고 확대되었으며, 이를 통해 환경의 해체를 가속화시켜왔음을 지적하면서, 이것을 '생산의 디딜방아'(treadmill of production)라고 부른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이 '디딜방아'의 속도는 영원히 증가할 수밖에 없고, 이것이 현대사회에서 환경문제의 심각성이 증가하게 되는 기본적인 메커니즘이다.

Schnaiberg는 이러한 생태학적 위기에 대하여 변증법적 접근을 제시한다. 즉, 생산확대가 '正'(thesis)이고, 생태학적 제약이 '反'(anti-thesis)이며, 이 양자간의 긴장은 '합'(synthesis)를 통해 감소되는 것으로 설명하는데, 이 합은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유형의 사회적 결정작용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본다. 그 결정은 어려운 정치적 갈등을 통해 이루어지며, 따라서 경제적, 생태학적 사실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가치의 문제와 결부된다는 것

이다. Schnaiberg는 세 가지 가능한 합으로서, '지속적인 생산확대'와 '관리된 결핍(managed scarcity)', 그리고 '생태학적 합'을 제시하였다. 생산조직이 생태계의 한계 포용력에 맞춰 조정되고, 적정기술(appropriate technology)이 사용되며, 노동자가 차지하는 잉여의 몫이 증가하는 방식이 '생태학적 합'의 유형으로서, Schnaiberg는 환경문제를 고려한다면 현대사회의 '관리된 결핍'으로부터 '생태학적 합'으로의 이전이 달성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3) 정통사회학적 접근

앞의 두 접근방법과 달리, Humphrey와 Buttell은 환경사회학을 기존의 사회학의 일부로 간주한다. 이 입장은 생산의 지속적 확장을 환경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보고 환경문제의 해결이 확장주의의 수정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는 정치경제학적 입장과 유사하나, 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경제성장의 중단이 사회복지를 악화시켜서는 안 된다고 본다.

Humphrey와 Buttell은 서구사회학이론의 세 전통을 수립한 Durkheim, Weber, Marx의 입장을 각각 보수주의, 자유주의, 급진주의 패러다임으로 명명하고, 그것들이 오염, 자원고갈 같은 환경문제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를 검토한다.

첫째, 보수주의 패러다임은 환경문제의 원인과 해결에 있어서 가치의 역할을 강조한다. 환경문제는 서구가 근대화하는 과정에서 경제성장, 풍요, 구조적 분화 등에 부착된 가치가 과도히 확장된 사회를 초래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본다. 그러나 이 패러다임은 산업화가 생활수준의 향상에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의 산업적 기반을 저해하는 행동을 취하는 데 주저한다.

둘째, 자유주의적 패러다임은 환경파괴로부터 혜택을 받는 사람들나 집단들, 특히 대기업이 국가의 결정작용에 대해 상당한 통제력을 행사함으로써 환경개혁을 저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그들의 목적과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대중매체를 사용하는 데 관심을 갖는다. 따라서 환경문제에 대한 궁극적 해결을 위해서는 기업의 정치적 권

력을 제거하고, 환경운동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더 많은 권력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셋째, 급진적 패러다임은 환경문제를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비합리성의 결과로 본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성장은 경제적, 사회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고, 따라서 환경의 파괴는 자본주의의 지속을 위해 필요한 것이다. 자본주의는 그 성격상 확장주의적이고, 이 확장은 자원낭비적이기 때문에 자본주의적 생산체제를 해체하는 것만이 환경문제의 해결방안이라고 이 패러다임은 주장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신생태학 패러다임, 정치경제학적 접근, 정통사회학적 접근의 세 가지 패러다임은 공통적으로 생태학적 접근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즉 인간의 물질적 생존의 기반인 생태계는 그 자신의 운동법칙을 가지고 있으며 그 안에 생물체를 유지할 수 있는 일정한 한계 포용력(carrying capacity)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근대적인 산업화 과정에서 급격한 인구성장과 자연착취의 결과로 생태계의 한계 포용력에 중대한 위협을 가했고, 이에 따라 환경오염, 자원고갈, 자연환경파괴 등의 환경문제가 나타났다고 보는 것이다. 환경문제를 초래한 요인들 가운데, 어떤 요인을 더 강조하는지 그리고 그 요인이 왜, 그리고 어떻게 작용하여 환경의 위기를 초래했는지, 환경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지 등에 따라 앞서 설명한 사회학의 세 가지 접근법으로 분류된다.

이 세 가지 접근법은 모두 서구의 입장에서 본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이론으로서, 개발도상국이나 중진국의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론적 도식이나 분석 틀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갖는다.

3. 신학에서 본 환경

신학에서 본 환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과 신약에 나타난 자연관을 분석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구약과 신약에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설명해주는 다양한 내용이 내포되어 있다.

1) 구약에 나타난 환경

창세기 1장 28절의 “자식을 낳고 번성하여 온 땅에 퍼져서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새와 땅위를 돌아다니는 모든 짐승을 부려라”라는 내용에 따르면 성서가 인간으로 하여금 자연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지배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이 구절을 들어 오늘날 우리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환경의 위기가 창세기 1장의 자연에 대한 인간의 오만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이 구절은 이 구절이 씌어졌던 당시, 척박한 땅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자연과의 힘겨운 투쟁 속에서 생존을 위해 힘을 다해야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환경을 고려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막강한 힘을 가진 환경 앞에 연약한 존재로서 있던 인간에게 첫 번째 과제는 그 자연을 잘 다스려 자신의 생존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었다. 당시 근동지방의 왕이 자신의 영토 안에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과 짐승들을 보고하기 위하여 이들을 지배하고 통치했던 것과 같은 의미로 정복과 지배를 이해할 수 있다. 즉 이때 정복과 지배는 보호해야 하는 개념으로 파악되어야 하며, 일방적으로 파괴하고 없애 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었다.

모세율법에서는 인간과 하느님의 관계,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창조물에 대한 인간의 청지기 직분과 동물에 대한 존중심을 배제하지는 않는다. 이스라엘이 하느님으로부터 땅을 선물로 받았다는 사실이 이러한 생각의 기본바탕을 이루고 있다. 출애굽기 23장 10절부터 12절에서는 땅을 돌보는 일,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 야생동물과 가축의 필요를 감지하는 섬세한 배려 등이 나타나 있다.

또한, 하느님이 설정해 주신 경계선을 인간이 넘어서면 심각한 결과가 따른다는 것을 모세율법은 경계하고 있다.

너희는 하느님 두려운 줄을 알아야 한다. 나 야훼가 너희의 하느님이다. 너희는 내가 정해 주는 규정을 실천하고 내가 세워 주는 법을 지켜 그대로 해야 한다. 그 땅에서 나는 열매를 맘껏 먹으며 그

땅에서 안심하고 살 수 있으리라(레위 25, 17-18).

또한, 신명기 25장 4절에서 모세율법은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땅을 씌우지 말 것을 명하고 있다. 이 사려 깊고 조심스러운 태도는 가축의 범위를 넘어서서 모든 야생 동물들에게까지 확대된다.

길을 가다가 나무 위나 땅바닥에서 새끼나 알이 들어 있는 새집을 보았을 때 어미가 새끼나 알을 품고 있거든 어미새 새끼를 잡지 말라. 어미를 날려 보내고 나서 새끼를 잡을 수는 있다. 그래야 너희가 잘되고 오래 살 것이다(신명 22, 6-7).

이 문구에서 모세오경의 저자는 자연세계의 창조력을 훼손시킬 때의 결과를 언급하고 있다. 개인과 공동체를 위하여 식량을 제공하는 일은 중요하지만 식량마련을 위해 동물의 번식을 불가능하게 해서는 안 되고, 만일 그런 일을 하게 되면 다음에 오는 세대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리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전현호, 1998, 228-232).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약에서는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상호보완적 관계로 설정하고 있으며, 자연의 훼손에 대하여 엄중한 경고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2) 신약에 나타난 환경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환경문제의 배경이 되는 지상 재물에 집착하거나 과소비를 행하지 않도록 자주 언급하고 있다.

길을 떠날 때에 아무 것도 가져가지 마시오. 지팡이도 자루도 빵도 은전도 가져가지 말고 속옷도 두 벌씩은 지니고 가지 마시오(누가 9, 3).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그에게 “어리석은 자야, 이 밤에 너에게서 네 영혼을 되찾아가리라. 그러면 네가 마련해 둔 것이 누구의 차지이 되겠느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보물을 모으면서 하느님 앞에 부요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습니다(누가 12, 20-21).

하느님이 인간에게 필요한 것을 마련해 주시므로 인간은 재산을 좀더 많이 모으려고 노심초사할 필요가 없고, 더구나 호화로운 생활과 과소비로 하-

님이 주신 것을 소모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전현호, 1998, 233).

마태복음 6장 25-34절에서는 하늘에 나는 새, 들에 핀 백합화도 먹이고 입힌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날짐승 하나, 풀 한 포기도 빠뜨림이 없이 먹여 준다는 뜻으로 풀 한 포기 새 하나에도 하느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물욕과 허례허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에 대하여서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마태복음 5장 43-48절에서는 먼저 하느님 나라와 하느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라고 말하고 있다(장일순, 1997, 15).

이렇듯 성경에 나타난 환경관은 인간과 자연의 공생의 원리를 기초로 하고 있다. 이에 기반하여 초대교회의 교부들은 창조물 전체가 하느님에 의해 창조된 것으로서 선한 것이고,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전체는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와 같은 성경의 자연관은 자연에 대하여 경이와 찬미, 감사와 기쁨의 감각으로 대했던 St. Francesco(1182-1226)나 종교개혁 당시의 Arndts(1555-1621), Gerhart(1607-1676) 등으로 연결되어 나타난다. Arndts는 루터 교회를 옹호하기 위해 저술한 책의 서문에서 하느님이 자연 속에서 현존하시므로 하느님을 발견하려면 사멸해 가는 피조물 안에서 찾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으며, Gerhart는 하느님의 사랑에 기초하여 인간은 피조물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고 피조물 속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인식할 수 있다고 하였다. 하느님의 사랑을 인간에게 반사해주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열매들은 인간의 잘못된 행위로 파괴될 수 있고, 파괴된 자연은 다시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들의 흐름은 17세기 말에 이르러서 물리신학(Physikotheologie)이란 새로운 사조로 발전되어 18세기 전 기간 동안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데, 이 신학에서는 환경에 대해 개별적으로, 그리고 상호 관련들을 살펴보는 입장에서 뿐 아니라 자연을 전체적 시각에서 체계적으로 관찰하였다. 물리신학에서 대표적인 Fabricius(1668-1736)는 물과 그 순환작용을 관찰하여, 생명체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나가는 과정을 밝히면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하나의 큰 질서 속에 포함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전현호, 1998, 235-240).

이와 같은 생각들은 이 시대에 번창하기 시작한 계몽주의 사상, 자연을 개발과 이용의 대상으로만 생각했던 산업혁명 정신 등에 의해 경시되게 되었다. 그러나, 현대 사회의 환경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신학적 관점에서 환경을 살리기 위한 노력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데 바탕이 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학에서는 구약의 창세기에 나타난 자연정복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여 인간중심적 가치관으로 해석되기도 하나, 성경의 다른 부분이나 역사적인 사실을 감안할 때, 그리고 근대사회 신학자들의 문헌을 고려할 때, 자연과의 공생의 관점에서 환경을 바라보는 생태중심주의에 입각한 자연관인 것으로 파악된다.

III. 가정학에서 본 환경

인간, 가족, 환경에 대한 통합적이고 연관된 관점, 즉 생태계적 관점은 고대 그리스의 고전적 가정학으로부터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고대 그리스에서 가정학은 인간생활의 장(oikos)을 다스려야 할 규정, 법규 또는 습관(nomos)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인식되었다. 당시 가정학은 철학, 특히 윤리학, 인간학, 사회철학, 교육철학, 종교철학과 깊은 관련성을 두고 이해되었는데, 이는 인간의 일상생활의 장인 家를 기본적인 연구 주제로 삼는 가정학이 인간존재를 기본적 주제로 삼는 철학과 깊게 관련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今道友信, 1989를 이기영, 1998, 17에서 재인용).

Xenophon(BC 430-345)은 oeconomicus라는 가정학에 관한 저술서에서 당시 가정의 지배와 관리체계를 설명하고 재산이나 가정경영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으며(문수재, 1993, 16), Aristoteles(BC 384-322)는 영리론과 가계론을 구분하고 영리론이 가계론의 한 부분이라고 보았다. 그는 생계를 위해서 영리기술이 요구되지만 지나친 영리행위는 행동의 의미나 본질

보다 소유나 신체적 편안함을 추구하게 하므로, 영리기술의 사용에 절제와 관용의 원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문수재 외, 1996, 175).

Aristoteles는 특히 가정경영에서 돌보는 기능(care)과 점검(check)의 기능을 중시하였는데(윤숙현, 1995, 244), 재화의 기능을 유지하고 오래 사용하는 일은 자원의 고갈상태나 환경문제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생태학적 관심으로 이해될 수 있다.

한편, 19세기 이후 근대학문이 발달하면서, 1870년에 Richards는 가정을 단순한 생활의 장(場)으로서 뿐만 아니라 생활의 기본적 원리를 훈련하는 장소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인간은 그들의 환경을 '형성하는 자'임과 동시에 환경에 의해서 '형성되는 자'임을 인식하여, 환경의 통제가 중요한 과제임을 강조하였다. Richards는 이러한 문제들과 관련된 분야의 학문을 생활학문으로서의 ecology 즉, home oekology라 명명하고자 하였다(문수재, 1993, 17-18).

비록 이 학문분야의 명칭이 생태학이 아닌 가정학으로 결정되기는 하였으나, 1902년에 제시된 가정학의 정의에는 가정학의 생태학적 관점이 암시되었다.

가장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가정학은 인간과 가장 가까운 물리적 환경과 법칙, 조건, 원칙들 그리고 이상을 다루는 학문이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의 본성에 관한 그리고 특히 이 두 요인간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다루는 학문이다 (Americ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1902를 Buboltz, 윤복자 역, 1994, 131에서 재인용).

인간과 가장 가까운 물리적 환경이란 일상 생활과 관계되는 재료, 주변환경, 물품 그리고 과정들을 의미한다.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본성이란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의미하며 인간과 환경간의 생태학적 관계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러한 관계는 이 정의에 대한 후속 토의에서 더 깊이있게 강화되었다.

1970년대에 이르러 지구상의 자원의 혼란이 문제시되고 생태계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하여 전세계적으로 자연의 회복운동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가정학에서도 환경에 대한 관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게 되었다.

예컨대, Mannino(1974)는 가족에 초점을 맞추어 가족-환경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지적하면서 생태학적 관점을 전개하였고, Deacon과 Firebaugh(1975)는 가족의 자원관리를 다루면서 가족생태계를 제시하였다. 또한, Paolucci, Hall과 Axinn(1977)은 가족의 의사결정을 이해하기 위하여 생태학적 접근법을 사용하였다. 이와 같이 가족을 생태학적 체계로 파악하고자 하는 노력은 Buboltz 등(1979)에 이르러 인간생태계 모델을 설정하는 데까지 발전하였다. Buboltz, Eicher와 Sontag은 총체적 관점을 전개하면서, 인간행동의 분석에 있어서 인간생태계 모델은 사회체계론적 모델보다 더 용이한 분석틀을 제공해준다고 하였다. 여기에서 생태계(ecosystem)에는 유기체, 환경 및 그들간의 상호작용이 포함되었다. 인간생태계 모델은 다양한 연구에 적용될 수 있는데, Buboltz, Eicher, Evers와 Sontag(1980)은 생활의 질에 대한 연구에 이 모델을 사용하였다.

우리나라의 가정학도 1980년을 전후로 하여 가정생활에 대한 실질적이고 과학적인 접근방법의 하나로서 인간생태학적 관점을 받아들여 다양하게 적용되어 왔으며, 이 관점을 도입하여 '전체성', '통합성', '관련성'을 강조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이렇게 본다면, 고대 그리스의 가정학에서는 가정을 관리하는 일에 있어서 환경에 대한 고려가 깊이 내재되어 있었으며, 근대 가정학 역시 19세기 말 탄생되는 시점부터 생태학적 관점이 잠재적으로 내포된 채 존속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가정학은 전문영역의 역할을 강화시켜야 된다고 보는 역량강화모델(empowerment model)과 함께, 사회운동모델(social movement model)이 강조되고 있다(이기영, 1998, 21). 사회운동모델에서는 사회적 조건의 근본적 요인과 그것이 인간생활에 주는 영향을 다루어야 한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양질의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연구의 주안점을 둔다.

점차 우리 사회에서는 양질의 생활환경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이다. 환경의 질은 다양하게 나눌 수 있지만, 가장 먼저 맑은 공기와 물, 양

질의 음식물, 그리고 일정한 면적의 생활공간이 지속적으로 확보되어 생물학적 안정성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 첫 단계이다. 그 다음 단계로 공해가 없는 쾌적한 환경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최종적인 단계로는 문화적 전통을 보존하면서 새로운 문화를 창조할 수 있어야 한다. 인간은 정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러한 창조적인 작업을 할 기회를 가질 수 없다면 행복한 삶을 누리는 데 장애가 될 것이다(전현호, 1998, 29). 이렇듯 가장 높은 수준의 환경의 질을 이루는 문화적 영역은 삶의 가치와 연계된 부분으로서, 가정학에서 중시되는 생활문화의 연구로 연계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정생활의 질적 향상에 최종목적을 두고 출발한 가정학은 시대에 따라 그 시대에서 요구하는 과제에 초점을 맞추어 변화되어 왔으나, 성립 초기부터 가정을 둘러싼 환경과의 관련성을 중시해왔고, 특히 통합적인 관점으로 생활문화의 과제를 다루어왔음을 알 수 있다. 생활문화로서의 환경운동은 생활양식과 관련되어 다루어질 수 있으며, 생활주체중심의 사회운동으로 발전될 수 있다. 또한 가정학의 자연관은 기본적으로는 생태중심주의에 입각한 환경의 개념으로부터 출발한 것으로 해석되지만, 경영 혹은 경제적 효율성의 개념이 함께 다루어지면서 기술중심주의 환경의 개념이 함께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IV. 인간의 복지향상을 위한 환경운동의 실천방향

앞의 두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환경을 바라보는 경제학과 사회학, 신학의 시각은 가정학적 관점으로 연결되어 파악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갖는다. 예컨대, 주류경제학의 기술중심주의는 가정생활에서의 기술적인 에너지 처리 방식의 개발 및 실천이나 환경세 등 적정 정책의 입안 등을 통한 가정의 환경보존행동의 조장으로 연결되어 파악될 수 있으며, 마르크스경제학의 자본주의 생산양식과 결부된 환경에 대한 문제의식은 자본주의사회의 생활양식, 즉

과잉 소비를 조장하는 생활양식을 파악하는 가정학적 해석과 연결되어 이해될 수 있다. 또한, 산업화와 과정에서 비롯된 생태계의 한계 포용력에 대한 위협이 환경문제를 초래했다고 보는 사회학의 환경인식이나 자연과 인간 간의 상호보완적 관계, 공생의 관계를 강조하는 신학의 환경인식은 고대 그리스의 고전적 가정학으로부터 근대 이후의 가정학에서 강조되었던 생태계적 관심과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더 나아가서 가정학의 통합적 관점, 총체적 관점은 경제학과 사회학, 신학의 환경관을 종합하여 환경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하나의 실천적 모델을 제시하는 데 적합하다 하겠다.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기술중심주의나 생태중심주의 어느 하나의 입장에 치우치지 않은 실천적 방안을 제시하기에 가정학적 관점이 매우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1990년대 들어 가정학이 사회운동모델로 발전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사회운동모델에서 추구하는 양질의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의 하나로서 가정학의 전통적 연구주제인 생활문화 연구와 환경운동을 접목시켜 볼 수 있다. 현대사회에서 경험하는 환경문제의 심각성이나 가정생활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할 때, 환경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생활문화에 초점을 맞춘 환경운동은 가정학에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인간의 복지향상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시급한 과제로 보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실상, 18세기의 주된 사회적 문제가 시민들의 정치적 권리 확보에 관한 문제 즉, '국가의 문제'였고, 19세기의 문제가 노동자들에 관련된 '사회의 문제'였다면, 20세기의 주된 문제는 생태계 파괴 및 자연의 빈곤화에 관련된 '자연의 문제'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

이와 같은 견해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양한 자료를 근거로 하여 산업화와 직결되어 있는 복지사회의 지속적인 기술 및 경제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삶의 질은 점차 악화되리라고 보고 있으며, 이러한 부정적인 현상의 원인으로서 '성장의 한계'를 지적한다. 경제성장위주의 정책으로 인한 자원의 고갈,

물가의 상승, 사회집단들간의 갈등문제 등 성장의 한계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최종욱, 1994, 13-21).

성장의 한계를 인식하면서 새로운 사회적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새로운 사회운동의 주된 특징은 정치적 요구와 정치적 변동보다는 일차적으로 가치나 생활양식, 관계의 변화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이 점에서 이 운동은 사회적이거나 문화적인 운동으로 특징지어질 수 있다(최종욱, 권용혁, 1994, 54-55).

환경운동은 가계, 기업, 정부의 세 가지 경제 주체의 측면에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가정의 생활양식이 변화되어 사회전반의 생활문화로 발전될 때 비로소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효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생태학적 관심과 곧바로 연결되는 관점으로 일종의 '생활자 중심의 운동'으로서 개인 및 가정이 중심이 되어 대안적 생활문화를 만들어 가는 새로운 사회운동이라 할 수 있다(윤택림, 1996, 209).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환경운동은 기존의 개별가정에서 이루어지던 환경관리방안 이외에 새로운 사회운동의 특징을 기본으로 하여, 미래 사회에 적합한 생활문화를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는 구체적으로 대안적 생활양식을 지향하는 방향, 공동체 지향의 방향, 그리고 환경문제를 정치화시키는 방향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 대안적 생활양식으로서 환경친화적 실천방안을 모색하는 방향이 있다. 산업사회의 물질주의적 생활양식이 자원의 고갈이나 환경문제를 초래하며 왜곡된 삶을 살아가는 데 대한 대안으로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제안하는 사람들이 있다. '자발적 단순성 지향'의 생활양식도 그 중 하나이다. 자발적 단순성지향(Voluntary Simplicity)의 개념은 Gregg (1936)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다. 그에 의하면, 인간은 보다 풍요로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제한된 욕구와 에너지에 대해 일정한 질서와 지침을 확보하려고 한다. 즉 인간은 소유하고 있는 자원이 삶의 주된 목표와 무관하거나 혹은 관계가 적은 경우, 자원의 외적 복잡성을 줄이려고 하며, 내적 목표와 관

계가 있는 경우에는 자원에 대해 신중하고 진지한 태도를 가지려고 한다는 것이다(Pestle 외, 1982).

1960년대의 “자연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은 단순성지향의 가치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운동으로서, 개인과 가족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철학적이고 실제적인 근거를 제공해주었으며, New Mexico의 생활공동체는 극단적인 단순성지향의 한 예라 할 수 있다. 한편 1970년대의 구미에서의 “동양회귀(East Turning)” 운동, 즉 논리와 과학의 틀에서 고통받는 서양의 정신을 초논리 및 초과학적인 동양의 지혜로 구제하려는 일종의 문명운동 등이 있다. 또한 “작은 것이 아름답다”의 저자인 Schumacher(1973)와 “Soft energy”의 주창자 Lovins(1977)는 미국의 일상생활이 에너지 부족으로 위협받게 됨으로써 성장의 한계가 나타난다고 하면서,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과소비와 불완전고용에 대한 해결방법으로서 규모를 줄이는 생활양식, 산업집중을 배제하는 기술,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 등의 방법을 제안하였다(Lovins, 1977).

Elgin과 Mitchell(1977)은 현대사회에서 나타나는 반문화의 경향에 주목하면서, 단순성지향을 다양한 생활방식에 담겨 있는 결속력으로 규명하였다. 단순성지향의 생활양식은 Roper 여론조사(1976)에서 미국인의 절반 정도가 생산과 소비를 “줄여야 한다”고 느끼고 있으며, Harris 여론조사(1977)에서 미국인들은 “높은 생활수준에 이르는 것”보다 “기본적인 필수품들만으로 사는 방법”을, “일의 능률적인 방법을 개발하는 것”보다 “큰 물건을 없애고 보다 인간답게 만드는 생활로 돌아가기”를 강조한 것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단순성지향의 생활양식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아니지만, 개인과 가족수준에서 사회와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하나의 가치 근거가 될 수 있다. 물론 단순성지향에 대한 인간의 태도와 행동 사이에는 차이가 존재하지만(Keisler 외 1969; Bem, 1970), 근검절약, 단순성, 다양성, 이웃간의 친절, 겸손, 숨씨 등과 같은 태도 변화에 의해 이미 주요한 사회운동 속에 단순성지향이 자리잡고 있음을 볼 수 있다(Leonard-Barton & Dorothy, 1981을 박순희, 1997에서 재인용).

이밖에도 자발적으로 검소한 생활을 하려는 조직적인 운동의 예로서, 물질적 축적이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로부터 시작된 미국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재단운동’을 들 수 있다. 이 교육과정에서는 수료자들로 하여금 연간 소비의 20퍼센트 정도를 줄이도록 하고, 궁극적으로 그들이 전에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적게 소비하며 살아가도록 이끌고 있다(앨런 데인 더닝, 구자건 역, 1994, 153-154).

둘째, 생활공동체운동으로의 방향이 있다. 일본의 경우 1960년대 후반 탄생하여 70년대에 정착하게 된 ‘생활클럽 생활협동운동’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이는 ‘새로운 사회운동’의 하나로서 물질주의적 가치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출발한 운동으로서 여성이나 소수인종 등 산업사회에서의 주변인들이 주축이 되고 있다. 이 운동은 생활의 질에 초점을 맞추고 다양한 방향의 운동으로 전개되었다. 일례로 ‘식생활과 관련된 생활협동운동’의 경우, 주부들과 생산자의 직접적인 대화를 매개로 하여 식품을 공동구매하는 것을 시발점으로 하여 80년대에는 식품 관련 법규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데까지 발전되었다. 일본의 생협운동은 생산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가해성이나 사회적 책임을 자각하고 공동구입의 품목에서 합성세제를 제외시키는 운동으로부터 문화와 관련된 기존의 질서와 가치를 대상으로 하는 운동으로 확대되었다(佐藤慶幸 외 편, 1995).

우리 나라에서도 1970년대 초 원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신용협동조합운동’에서 발전된 ‘한살림공동체운동’을 예로 들 수 있다. 이 운동은 소규모의 유기농산물 직거래조직으로 출발하여, 불과 십년이 못되는 사이에 전국의 주요 도시와 농촌을 잇는 공동체적 연대의 조직이 형성되었다. 현재 한살림운동은 생활협동조합의 형태로 운영되면서 주로 도농간의 유기적인 농산물직거래망을 유지하고 확대하는 일에 주력하고 있다.

한살림공동체운동이 종래의 주류 사회변혁운동에 비교하여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철저히 비폭력적인 수단을 통하여 권력추구적, 배타적 경쟁의 원리를 넘어서서 자율적이며 협동적인 공생의 질서를

지향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공생의 논리를 현실의 생활 속에 실천하려고 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것은 경쟁적 권력투쟁과는 매우 거리가 먼 방식, 즉 각자에게 익숙한 일상적 삶 속에서 자치와 협동의 공간을 가능한 한 확보하고 넓혀가려는 대안적 생활문화운동의 형태를 취하게 된다.

생활협동운동은 산업노동의 논리와는 달리 인간 생존의 기초로서 땅이나 농업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와 같은 입장은 생태학적 관심과 곧바로 연결된다. 즉, 낭비와 파괴를 조장하는 자본주의적 시장기구로부터 가능한 한 독립성을 유지하여, 개인 및 가정의 자치권을 확장시키려는 노력이 생활협동운동이라고 할 때, 이와 같은 노력은 생태학적 건강을 되찾으려는 과정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현대 자본주의 시장구조는 철저한 이윤추구의 논리 하에서 농업생산물의 희생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생활협동운동은 인간 생활의 필수품을 그것의 교환가치가 아니라 유용성의 관점에서 파악하는 데 기초를 두고 있으므로, 농산물직거래가 가장 일차적인 과제로 설정되는 것이다(장일순, 1997, 163-165).

또한, 우리나라의 민우회가 지난 10년 동안 전개해온 '생활협동운동'은 주부활동조직으로 출발하여 지역사회의 주부를 조직화하는 데에 성공한 경우이다. 생협운동은 1989년에 220여 명의 조합원으로 시작하여 현재 3천여 명의 회원을 가진 대중적 조직운동으로 발전하였다. 민우회는 이 운동을 주부들이 살림을 하면서 활동할 수 있고 또 살림과 연관된 우리 사회의 문제를 풀어가면서 이를 바탕으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운동으로 파악하고 있다(한국여성민우회 생활자치여성센터, 1998을 이영자 2000, 321에서 재인용).

생협은 이렇듯 초기에는 여성운동의 한 부분으로 시작되었으나, 성장과정에서 여성운동과는 별개의 먹거리 구매활동의 조직으로 발전하였다가 1992년 이후부터는 민우회 내의 생활협동사업부로 개편 통합되면서 여성문제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가지게 되었다고 본다. 그러나, 여성문제와 결부된 고유의 과제해결에 밀려 환경과제를 충분히 고민하지 못했다고 보는 해석이 있다(이영자, 2000, 321-322).

셋째, 유럽의 환경운동을 통하여 환경문제의 정치화 가능성을 찾아볼 수 있다. 유럽 대부분의 나라들에서는 1960년대 말에서 1970년대 초에 걸쳐 과학기술의 발전에 기초한 산업화의 부정적인 결과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고조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인식으로부터 새로운 사회운동의 쟁점과 조직들이 발전하였는데 프랑스의 1968년 5월 운동은 이후에 전개된 '새로운 사회운동'의 기폭제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1970년대 초반 프랑스에서는 자연보호운동협회, 생활환경보호집단, 공해반대운동, 사용자보호운동, 소비자운동, 대안적 생활운동, 반핵운동, 극좌파운동, 대안적 좌파 등 여러 집단의 구성원들이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환경운동단체를 결성하였다.

프랑스의 환경운동은 특정지역의 군사훈련소 건설 저지 및 핵발전소 건설의 연기 등으로 나타났다. 1980년대에 들어서 반핵운동의 힘이 약화되면서 프랑스의 환경운동은 전반적으로 약화되었지만, 프랑스 환경운동이 환경운동의 출현으로부터 대통령 후보 출마, 그리고 환경운동의 정치화로 연결되었다(정수복, 1994, 109-162)는 사실은 환경운동의 발전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함의를 갖는다.

한편, 1970년대 독일에서 전개된 환경운동은 프랑스에서와 마찬가지로 사회운동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 독일 환경운동의 전개는 학생운동 출신의 활동가, 지역주민, 지식인의 세 가지 행동주체들 사이에서 연대를 통해 형성되고 발전되었다. 독일의 환경주의자들은 기존의 의회민주주의의 제도가 자연환경의 파괴와 '삶의 질'을 문제시하는 자신들의 주장을 적절하게 수용하지 못함을 인식하고 새로운 정당을 만들려는 움직임으로 발전해왔는데, 이와 같은 독일 환경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특징의 하나는 환경문제와 관련된 대형사업의 계획과 심의, 인가 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정수복, 1994, 136-162).

지역법 및 주택법, 조세정책, 규제, 세분화 등은 개인과 가족의 생활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관련 정책의 입안 및 실행과정에서 가족의 영향력을 확대시킬 필요성을 갖는다.

이와 같은 환경운동의 내용이 교육프로그램으로 구체화될 때, 환경운동은 근본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1960년대 후반에 등장한 '환경교육'은 초기에 자연학습, 환경보존교육, 야외실습교육 등을 대신하는 용어로 사용되어졌으나, 오늘날에는 초기에 강조된 자연보존개념의 교과과정은 물론 과학, 기술공학과 사회와의 연관성 등의 주제에 이르기까지 그 영역이 매우 확대되었다(박봉규 외, 1995, 491-494).

앞으로의 환경교육에서는 바람직한 생활문화의 조성 차원에서 가정과 자연환경, 사회적 환경의 상호관련성이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보다 살기 좋은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생활인을 양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V. 요약 및 결론

산업화로 인한 물질문명의 발전에 따르는 환경문제의 악화로 인하여 새롭게 환경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문제의 해결이 미래 생활의 질을 결정하게 될 것이며, 인간의 복지향상을 위해서는 가정이 주축이 되어 새로운 생활문화운동으로서 환경운동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였다. 환경운동의 방향 설정을 위하여 제반 인접 분야에서 바라보는 환경문제의 시각을 파악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가정학 분야에서 발전시켜야 할 환경운동을 제시하였다.

환경문제를 바라보는 경제학, 사회학, 신학의 기본 관점은 각 학문영역에서도 기술중심주의와 생태중심주의 중 어느 입장을 취하는가에 따라 강조점이 각기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더 나아가서 환경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 기술중심주의와 생태중심주의의 두 가지 입장을 적절히 조화시켜야 함을 알 수 있다. 즉, 기술위주의 방안을 강구하는 것만으로는 궁극적인 환경문제의 해결에 도달할 수 없으며, 반대로 이타심에 호소하고 사회와 환경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의 행동을 바꾸는 데 실효성이 적다는 사

실이다(박운아, 1997, 96). 환경문제의 본질상 어느 특정한 분야로 설명하기보다는 총합적인 관점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종합학문으로서 가정학이 주축이 되어 환경문제를 바라보아야 하리라는 점을 제시하였다. 가정학의 발달과정에서 환경에 대한 개념 및 주제가 고대로부터 근대 이후 현대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다루어졌음을 보아도 환경과 관련된 가정학적 연구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새로운 생활문화운동으로서의 환경운동의 방향은 대안적 생활양식을 지향하는 방향, 공동체 지향의 방향, 그리고 환경문제를 정치화시키는 3가지 방향으로 요약된다.

첫째, 현재의 생활양식에 대한 대안으로서 환경친화적 실천방안을 모색하는 방향이다. 이는 생태중심주의적인 관점에 기반을 둔 방안으로서, 가정에서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이루어왔던 단순한 에너지 절약과 재사용의 실천뿐 아니라 전체적인 생활양식으로서 '자발적 단순성 지향'의 생활양식의 근본이념이나 실천방안을 다양한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향이다.

예컨대, 여성운동의 일환으로 한국여성민우회에서 실시했던 '적게, 작게, 천천히' 대안적 생활양식 지향 운동을 예로 들 수 있다. 이 운동의 목표는 기존의 "빨리빨리, 많이, 크게"에 집착하는 과소비적인 생활양식이 인간의 삶과 환경을 파괴시켜온 것을 극복하는 데 있다. 주부들이 중심이 되어 가정에서 자원절약과 환경오염 줄이기의 실천지침을 개발하고 이를 지역사회에 확산시켜 새로운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고자 하였다(이영자, 2000, 320).

가정학에서는 '자발적 단순성 지향'의 생활양식이 장기적으로 인간의 삶에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 왜 그와 같은 생활양식을 추구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 등을 일반 대중이 납득할 수 있는 언어로 설명하여 제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앞서 제시된 민우회의 운동에서 사용하였던 실천지침인 물과 전기의 사용량 줄이기, 재활용품을 사용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과대포장 상품을 거부하기,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유기농법으로 지은 우리 농산물을 이용하기 등과 함께, 가정학에서는 가족구성원의 생활용품에 대한 지식이나 가치에 대한 자료 수

집을 기초로 하여, 각 가족구성원의 주된 생활용품(예컨대 초등학생의 경우, 학용품 오래 사용하기, 선물 줄이기, 생일파티 비용 절감하기 등)에 대한 '단순성 지향의 생활양식'의 구체적 내용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생활공동체운동의 방향이 있는데, 이는 생태중심주의적 관점과 기술중심주의적 관점에 기반을 둔다. 즉 이 운동은 자연과 인간, 인간과 인간의 공생을 추구할 뿐 아니라, 규모의 경제와 같은 기술적 운영의 묘를 극대화시킴으로써 구성원의 복지를 증대시키고자 하는 방안이다.

이와 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졌던 '한살림공동체운동'이나 '생활협동운동'은 가정학적 관점에서 새롭게 해석해 볼 가치가 있다. 이들 운동에서 표방하는 자율성, 협동에 기반한 공생의 원리, 살림에 기초를 둔 주부 중심의 활동원리 등은 가정학이 주축이 된 새로운 생활문화운동의 이념으로 계승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의 전통 가족과 현대 가족의 특성이나 가족문제의 특성에 대한 가정학의 축적된 지식을 바탕으로 보다 많은 사람에게 수용될 수 있는 생활공동체운동의 이념을 추가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기존의 운동에서는 식생활 영역에 초점을 맞춘 실천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가정학의 새로운 생활문화운동에서는 의식주 육아 등 다양한 가정 생활영역으로 운동의 적용범위를 넓혀 나가야 할 것이다. 예컨대 취업주부의 직업활동이나 전업주부의 자기개발활동을 돕기 위한 공동육아의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며, 의복이나 기구 등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 운동은 일차적으로는 거주지를 중심으로, 주부를 중심으로 구성하여 활동의 참여를 극대화시켜야 할 것이며, 전국적 조직망으로, 전체 가족구성원으로 점차 운동의 범위를 확산시킬 수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가족의 경계를 더 넓은 사회로 넓힘으로써, 모든 구성원이 인간답게 살 수 있게 하는 '새로운 생활자운동'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 환경운동의 정치화이다. 이는 기술중심주의

적인 관점에 기반을 둔다. 즉 환경운동의 성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공동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조직화하여 정치적 역량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환경정책에 대한 가정의 영향력을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가정이 주축이 되어 환경정책에 대한 평가를 투표권에 반영하고, 이들을 통하여 정책입안이나 실행에서 실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해야 할 것이다. 환경정책분야에 적극적인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독일의 경우는 이러한 노력이 축적된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가정학의 일 분야로서 빠르게 성장해온 소비자 영역의 축적된 지식과 경험은 일차적으로 소비자운동을 통한 환경운동으로 발전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품에 대한 정보를 대중에게 전달하는 일로부터 시작하여, 개인이나 가족이 환경을 황폐화시키지 않는 상품에 대한 구매선택을 통하여 기업의 생산정책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 등이 소비자운동의 내용으로 다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소비자운동을 통한 환경운동은 더 나아가서 선거에서 개인이나 가족의 환경에 대한 인식이 정책에 반영되게 하는 것 등 다양한 내용으로 발전될 수 있다. 지역사회 대표를 선택할 때, 환경에 대한 공약에 기초하여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은 환경운동의 실효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이 된다. 제시된 정책대안이 지역주민의 단기적 이익은 도모하지만 장기적으로 지역사회의 환경을 황폐화시키는 일은 아닌지, 그리고 지난 임기 중 무엇에 가치를 둔 의사결정을 해왔는지에 따라 개개의 투표권을 행사하는 일이다. 기존의 시민연대가 주축이 되어 운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며, 인터넷과 같은 전산망을 활용하여 이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제시한 새로운 방향의 환경운동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등학교, 대학교 등 정규 교육기관에서 현행 이루어지는 환경교육의 내용을 보강해야 할 것이며, 주부나 노인 등을 대상으로 한 생애교육 프로그램으로 개발되어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각종 매체를 통하여 이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오늘날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다. 이제 환경에 대한 관심은 모든 사람이 나누어 갖는 공동의 관심사가 되었다. 그러나 환경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생활양식의 변화를 요구하고 물질적인 회생을 요구한다. 따라서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의 모색에는 이해관계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형성되기 마련이다(정수복, 1994, 151-152).

이 갈등을 극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사회, 정치, 과학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통합적인 관점으로 실천적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현 시대의 위기 상황을 인식하고, 더 나아가서 소비자의 행동 차원에서, 정치역량을 발휘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공동체를 가꾸는 시민 전체의 선택을 통하여 새로운 행동에 힘을 집중시켜야 한다(에르빈 라슬로, 하늘, 땅, 물, 벗 편, 1998, 154). 1971년 복원생태학 분야를 개척한 Cairns의 1992년 연구보고서(유진 오덤, 1998, 365)에서 환경운동 성공사례의 특징으로 강조하고 있듯이 시민, 정부, 기업 세 부분의 어느 하나라도 환경운동에 대한 역할이 부진할 때 생태계의 복원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특히, 가정학은 인류복지의 향상이라는 최종적 목적을 지향하고 있으므로,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관계 유지를 위한 대책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이 세 가지 환경운동의 주체가 적절한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중심축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1) 가톨릭 정의평화연구소, 알기 쉬운 공해추방 상식, 서울: 성바오로 출판사, 1993.
- 2) 계선자, 강기정, 도시주부의 가치성향에 따른 녹색소비 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2(1), 1998, 103-117.
- 3) 김남두, 환경문제의 성격과 지속가능한 발전, 이정전 편, 지속가능한 사회와 환경, 서울: 박영사, 1995, 49-73.
- 4) 노남숙, 주부의 환경관리지식 인지도와 환경관리행동에 관한 연구: 의식주, 경영, 구매, 가족관리행동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94.
- 5) 문수재, 인간생활과 가정학, 가정학의 새로운 접근-인간생활을 중심으로, 서울: 수학사, 1993, 10-64.
- 6) 문수재, 21세기 한국가정학의 인간생태학적 접근, 인간생태학적 측면에서의 가정학, 연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창립 30주년 기념 국제 학술심포지움, 1994, 133-150.
- 7) 문숙재, 광인숙, 김순미, 홍성희, 윤숙현, 새로 보는 가정경영, 서울: 학지사, 1996.
- 8) 민현선, 이기춘, 환경친화적 소비태도와 소비행동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7(1), 1999, 29-44.
- 9) 박봉규 외 6인, 생태적 조화를 이루는 인간환경, 서울: 동성사, 1995.
- 10) 박순희, 단순성 지향이 가정복지에 미치는 영향-가족의 결속력과 적응력, 가사노동만족도, 경제적 복지를 중심으로, 대구 효성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1997.
- 11) 박운아, 기혼여성의 환경친화적 소비자행동,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1997.
- 12) 송인숙, 자발적으로 간소화하는 생활방식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1999, 37(11), 85-95.
- 13) 서정희, 21세기 소비자주권시대를 실현하기 위한 소비자교육의 과제와 방향, 소비문화연구, 1999, 2(1), 119-138.
- 14) 양중희,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환경과 발전, 이정전 편, 지속가능한 사회와 환경, 서울: 박영사, 1995, 75-119.
- 15) 엘런 데인 더닝, 구자건 역, 소비사회의 극복, 도서출판 님, 1994.
- 16) 유진 오덤, 이도원, 박은진, 송동하 역, 생태학: 환경의 위기와 우리의 미래, 서울: 사이언스 북스, 1998.
- 17) 윤숙현, 아리스토텔레스의 가정관 연구, 호남대학교 논문집, 16(2), 1995, 235-246.
- 18) 윤택림, 생활문화 속의 일상성의 의미, 생활문화

- 에 대한 여성학적 고찰, 한국 여성학회 제 12차 춘계학술대회 발표, 205-242, 1996.
- 19) 이기영, 인간과 생활환경에 관한 가정학적 접근, 인간과 생활환경, 서울: 학지사, 1998.
- 20) 이영자, 소비자본주의 사회의 여성과 남성, 서울: 나남출판, 2000.
- 21) 이정진, 녹색경제학, 서울: 한길사, 1998.
- 22) 장일순의 이야기 모음, 나락 한알 속의 우주, 대구: 녹색평론사, 1997.
- 23) 전현호, 자연환경, 인간환경, 서울: 성바오로, 1998.
- 24) 정수복, 유럽 환경운동의 형성과 전개-프랑스와 독일을 중심으로, 현대의 위기와 새로운 사회운동, 서울: 문원, 1994.
- 25) 佐藤慶幸, 天野正子, 那須 壽 編著, 女性たちの生活者運動, 東京: マルシユ社, 1995.
- 26) 최남숙, 서울시 주부들의 환경교육과 환경보전 행동에 관한 연구: 가정폐기물 분류배출행동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1994.
- 27) 최중욱, 현대의 위기와 '위협사회'의 현상학, 현대의 위기와 새로운 사회운동, 서울: 문원, 1994, 9-32.
- 28) 최중욱, 권용혁, 새로운 사회운동론에 대한 이론적 설명담론, 현대의 위기와 새로운 사회운동, 서울: 문원, 1994, 33-104.
- 29) 하늘, 땅, 물, 벗 편, 녹색 성서, 서울: 가톨릭출판사, 1998.
- 30) Bem, D., *Beliefs, attitudes and human affairs*, Belmont, CA: Brooks/Cole Publishing Co, 1970.
- 31) Buboltz, M.M., Integration in Home Economics and Human Ecology. 윤복자, 가정학과 인간생태학의 통합, 인간생태학적 측면에서의 가정학, 연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창립 30주년 기념 국제 학술 심포지움, 1994, 79-131.
- 32) Buboltz, M.M., J.B.Eicher, S.J.Evers and M.S.Sontag, A Human Ecological Approach to Quality of Life: Conceptual Framework and Results of Preliminary Study, *Social Indicator Research Journal*, 1980, 7:103-136.
- 33) Buboltz, M.M., J.B.Eicher and M.S.Sontag, The Human Ecosystem: A Model, *Journal of Home Economics*, 1979, Spring, 28-31.
- 34) Buboltz, M.M., M.S.Sontag, Integration in Home Economics and Human Ecology, *Journal of Consumer Studies and Home Economics*, 1988, 12, 1-14.
- 35) Deacon, R.E., F.M.Firebaugh, *Family Resource Management: Principles and Applications*, Boston: Allyn and Bacon, Inc.,1975.
- 36) Keisler, C., B.Collins, & N.Miller, *Attitude Change*. New York: John Wiley & Sons, 1969.
- 37) Mannino, F.V., An Ecological Approach to Understanding Family and Community Relationships, *Journal of Home Economics*, 1974, Mar., 9-14.
- 38) Leonard-Barton, D. Dorothy, Voluntary simplicity lifestyles and energy conservation,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8, 243-252, 1981.
- 39) Lovins, A., *Soft energy paths: Toward a durable Peace*. New York: Ballinger Publishing Co., 1977.
- 40) Paoucci, B., O.A. Hall and N. Axinn, *Family Decision Making: An Ecosystem Approach*, New York: John Wiley and Sons, 1977.
- 41) Pestle, R.E., T.Cornille & K.Solomon, Lifestyle alternatives: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an attitude scale,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1(2), 1982, 175-182.